

農家調查結果

經濟作物의 生産調整에 관한 農民意識

金 敏 男 · 李 成 珪 · 朴 贊 男

責任研究員 研究員 研究員

각각 農政輿論調查室

- I. 머리말
- II. 調查概要
- III. 經濟作物의 作付體系 決定要因
- IV. 生産·價格波動의 原因
- V. 生産·價格波動의 對策; 生産調整의 必要성과 方法
- VI. 맺는 말

금까지의 自給自足的, 半商業的 營農에서 市場販賣에 크게 비중을 두는 商業化營農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를 맞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자본투입 과정에는 效率性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고 또 試行錯誤도 없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外的 作用에 의한 자본축적의 계기는 궁극적으로 內的 資本축적의 바탕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I. 머리말

그러나 農業發展내지 變遷過程이라는 긴 眼目에서 보면 앞서와 같은 긍정적, 발전적 측면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는 농촌·농업에 미쳐 생각하지 못한 또는 현실적 정책적 配慮가 따르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갖가지 어려움, 즉 否定的 측면도 적지 않았다.

經濟開發 5개년계획의 꾸준한 추진으로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農政史에 뚜렷한 의미를 부여 받아야 할 두 차례의 農漁民所得增大特別事業이 중전의 농어촌개발사업과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강력히 실시되었다. 즉 1968~71년과 1972~76년 등 2차에 걸쳐 실시된 이 農特事業 기간 중 果樹, 원예, 畜産 등 農漁民所得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전 經濟作目 개발에 총 1,275억 원의 자금이 투입되었고 적어도 115만 호 이상의 農家가 참여하였다.

商業化營農의 진전과정에서 우리 農業 內部에는 각종 資金需要에 應當하기 위하여 資金의 回轉이 빠른 經濟作物(換金作物) 生産體制가 급속도로 진행되게 되었다.

이 말은 자체 자본축적 능력을 갖기 어려운 농촌에 外的 作用에 의한 자본 축적의 힘을 제공한 것으로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 農業이 지

그러나 생계를 위한 自給自足的 營農만을 해오던 대부분의 농민들에게는 商業的 營農은 여전히 生소한 것으로서 미쳐 經營能力이 갖추어 지기도 전에, 그리고 需給에 관한 情報(inform-

ation) 등 각종 資料의 수집이 어려운 상태하에서 스스로 또는 정부의 생산지도 등에 힘입어 무분별하게 生産計劃을 추진함으로써 때로는 과잉생산과 그에 따른 價格不安定을 초래, 상당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다.

물론凶·豊年이나 農業生産이 지닌 特性 등에 의한 價格波動도 무시할 수 없으나 이와 같은 要因으로 인한 농산물의 週期的인 價格波動은 특히 마늘, 양파, 고추와 같은 주요 經濟作物의 경우 거의 3~4년에 한번씩 되풀이되어 왔다고 하겠다.

더구나 최근에는 複合營農의 강력한 추진을 목표로 한 政府施策으로 經濟作物 재배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어서 이에 따른 生産·價格波動을 완화시키기 위한 生産調整體制가 보다 효율적으로 갖추어지도록 生産과 價格 및 流通問題를 一元的으로 檢討해야 할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하겠다.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일부 경제작물의 豊作으로 인한 價格暴落 현상은 이러한 요구를 더욱 절실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本研究院은 經濟作物의 生産調整에 관한 농민들의 意識을 알아 봄으로써 經濟作物의 효율적인 生産戰略과 관련된 농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이 調査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아직은 극히 생소한 「生産調整」 또는 「生産調節」의 문제에 관한 農民들의 意識構造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經濟秩序나 慣行에서 보면 생산조정은

적어도 他律的인 干涉이며 농민 개개인의 입장에서서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한 고통까지 수반하는 「決斷」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 속하는 경제적 문제일수록 해당 경제주체의 「視角」이나 「意向」은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러나 本稿는 우선적으로 전체 經濟作物의 생산조정에 관한 農民意識을 극히 개략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하는 것이며, 개별 경제작물의 作付體系 및 價格, 그리고 流通 등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접근은 추후에 내게 될 보고서에서 본격적으로 시도될 예정이다.

Ⅱ. 調査概要

1. 調査對象者

본연구원의 農政輿論調査를 위한 현지통신원으로 위촉된 1,990명 중 「個人기록카드」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통신원을 제외한 1,933명을 調査對象者로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道別 分布와 應答率은 <表 1>과 같다.

그런데 조사 대상자인 本研究院의 農政輿論調査 現地通信員들은 농촌에서 篤農家로 인정되는 농민과 農村指導所 및 農漁民團體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농민들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農村社會에서 여론지도층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그 地域社會를 잘 대변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볼

表 1 應答者의 道別 分布

| 구 분 | 경 기 | 강 원 | 충 북 | 충 남 | 전 목 | 전 남 | 경 북 | 경 남 | 계 주 | 계 |
|------------|------|------|------|------|------|------|------|------|------|--------|
| 통신원수(명) | 213 | 111 | 147 | 236 | 199 | 329 | 349 | 273 | 76 | 1,933 |
| 응답자수(명) | 130 | 60 | 87 | 154 | 130 | 215 | 221 | 179 | 33 | 11,209 |
| 응답비율(%) | 61.0 | 54.1 | 59.2 | 65.3 | 65.3 | 65.3 | 63.3 | 65.6 | 43.4 | 62.5 |
| 응답자도변분포(%) | 10.8 | 5.0 | 7.2 | 12.7 | 10.8 | 17.8 | 18.2 | 14.8 | 2.7 | 100.0 |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유의하고자 하는 것은 이들이 전체 농민들이나 그 지역 사회를 대변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耕作規模나 學歷과 같은 속성에서 보면 농촌사회의 평균 수준을 다소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2. 調査方法

이제까지의 이같은 조사는 주로 分析이 편리한 客觀式設問 위주로 시행되어 왔으나 경제작물의 生産調整에 관한 농민의 意識조사는 所得增大나 生活向上 등 농민들의 利害關係가 직접,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따라서 農政으로 수행되는 경우 매우 심각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문제인 만큼 제한된 답변을 유도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일정한 설문·답변 유형을 미리 주는 것을 피하고 이른바 개방된 설문식을 택했다.

다시 말하면 농민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意思를 집약하고 반영시켜야 한다는 취지에 되도록 근접하기 위해 主觀式設問 위주로 설문지를 작성하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물론 현지면담이 아닌 우편조사로 농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응답자인 현지통신원들은 이런 종류의 조사에 대한 응답경험을 많이 쌓았으며, 한편으로는 주관식으로 응답한 내용의 분류 가지수도 되도록 많이 하여 농민들의 의사가 누락되거나 애매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였음을 밝혀 둔다.

3. 調査期間

1983년 9월 10일~10월 4일

4. 分析方法

회송된 조사표의 응답내용을 SPSS에 의해 전산처리했으며 응답자의 연령, 학력, 경작규모 등을 獨立變數로 하고 應答者의 意思를 從屬變數로 하여 階層間 比較分析을 하였다.

5. 應答者의 階層別 分布

응답자의 연령층별, 학력별, 경작규모별 분포는 <表 2~4>와 같다.

表 2 應答者의 年齡層別 分布

| 區 分 | 20代 | 30代 | 40代 | 5·60代 | 計 |
|------------|-----|------|------|-------|-------|
| 應 答 者 數(名) | 29 | 174 | 585 | 421 | 1,209 |
| 構 成 比(%) | 2.4 | 14.4 | 48.4 | 34.8 | 100.0 |

表 3 應答者의 學歷別 分布

| 區 分 | 國 卒 | 中 卒 | 高 卒 | 大 卒 | 計 |
|------------|------|------|------|-----|-------|
| 應 答 者 數(名) | 221 | 477 | 445 | 66 | 1,209 |
| 構 成 比(%) | 18.3 | 39.5 | 36.8 | 5.5 | 100.0 |

表 4 應答者의 耕作規模別 分布

| 區 分 | 零 細 農 | 小 農 | 中 農 | 大 農 | 計 |
|------------|-------|------|------|------|-------|
| 應 答 者 數(名) | 32 | 256 | 580 | 341 | 1,209 |
| 構 成 比(%) | 2.6 | 21.2 | 48.0 | 28.2 | 100.0 |

* 영세농(0.5ha 미만), 소농(0.5~1.0ha), 중농(1.0~2.0ha), 대농(2.0ha이상)

Ⅲ. 經濟作物의 作付體系 決定要因

여기서 經濟作物이란 主穀을 제외한 마늘, 양파, 고추, 고등채소 등의 작물을 말한다. 이 밖에도 많은 경제작물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조사의 편의상 이들 작물에 국한된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미리 밝혀둔다.

1. 作付體系 決定에 필요한 情報源

이에 대한 設問 내용은 “귀하께서는 그 해의 經濟作物 相互간의 作付體系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나 소식은 어디서 얻게 됩니까”로서 응답결과는 <表 5>와 같다.

무응답 144명을 제외한 1,065명의 응답 중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農村指導所」로서 25.2%이었다.

이는 農村社會에 있어서 農民에 대한 농촌지도소 역할의 중요성, 즉, 農村指導所의 栽培技術 및 作付體系指導에 따른 技術擴散(technology diffusion)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라 하겠다.

또한 조사대상자인 現地通信員들이 대부분 農村에서의 輿論指導者(opinion leader)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는 여론지도자를 통한 정보의 2段階 흐름理論(two-step flow theory)의 적용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 다음으로는 新聞, 雜誌, TV, 라디오 등 매스 미디어가 중요한 情報源으로 되어 있다. 이들 매스콤을 통한 필요한 情報受信은 24.1%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TV·라디오」가 16.6% 「신문·잡지」가 7.5%로서 특히 경제성장과 함께 電子媒體(TV)의 급격한 농촌 보급현상을 나타내면서 이들 매스 미디어는 농촌에서 빼놓을 수 없이 주요한 정보전달수단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웃」과 「종묘사」도 각기 11.2%, 9.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農村에서 이웃과의 經濟作物 재배에 관한 對話가 빈번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종묘사의 경우는 經濟作物의 種子供給과 관련, 농민들의 재배의향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

表 5 作付體系決定에 필요한 情報源

단위 : 명 (%)

| 구분 | 이웃 | 농촌지도소 | 읍·면사무소 | 농협 | T·V 라디오 | 신문·잡지 | 종묘사 | 이장·지도자 | 별다른정보의 필요성을느끼지않는다 | 기타 | 계 |
|-------|-----------|-----------|---------|---------|-----------|---------|----------|---------|-------------------|---------|--------------|
| 명 均 | 119(11.2) | 268(25.2) | 13(1.2) | 21(2.0) | 177(16.6) | 80(7.5) | 105(9.9) | 19(1.8) | 253(23.7) | 10(0.9) | 1,065(100.0) |
| 20대 | 6(23.1) | 5(19.2) | 0(0.0) | 0(0.0) | 3(11.5) | 2(7.7) | 2(7.7) | 0(0.0) | 8(30.8) | 0(0.0) | 26(2.4) |
| 30대 | 14(8.9) | 22(14.0) | 2(1.3) | 3(1.9) | 29(18.5) | 12(7.6) | 22(14.0) | 3(1.9) | 47(29.9) | 3(1.9) | 157(14.7) |
| 40대 | 63(12.2) | 128(24.8) | 4(0.8) | 10(1.9) | 85(16.5) | 39(7.6) | 58(11.2) | 9(1.7) | 115(22.3) | 5(1.0) | 516(48.5) |
| 5·60대 | 36(9.8) | 113(30.9) | 7(1.9) | 8(2.2) | 60(16.4) | 27(7.4) | 23(6.3) | 7(1.9) | 83(22.7) | 2(0.5) | 366(34.3) |
| 국 출 | 24(12.5) | 56(29.2) | 5(2.6) | 4(2.1) | 32(16.7) | 7(3.6) | 10(5.2) | 3(1.6) | 49(25.5) | 2(1.0) | 192(18.0) |
| 중 출 | 54(12.7) | 107(25.1) | 3(0.7) | 7(1.6) | 67(15.7) | 33(7.7) | 41(9.6) | 8(1.9) | 103(24.2) | 3(0.7) | 426(40.0) |
| 고 출 | 37(9.5) | 92(23.6) | 5(1.3) | 8(2.1) | 70(17.9) | 32(8.2) | 46(11.8) | 8(2.1) | 87(22.3) | 5(1.3) | 390(36.6) |
| 대 출 | 4(7.0) | 13(22.8) | 0(0.0) | 2(3.5) | 8(14.0) | 8(14.0) | 8(14.0) | 0(0.0) | 14(24.6) | 0(0.0) | 57(5.4) |
| 영세농 | 4(14.8) | 9(33.3) | 0(0.0) | 0(0.0) | 6(22.2) | 1(3.7) | 0(0.0) | 0(0.0) | 7(25.9) | 0(0.0) | 27(2.5) |
| 소 농 | 24(10.5) | 50(21.9) | 4(1.8) | 2(0.9) | 47(20.6) | 19(8.3) | 20(8.8) | 5(2.2) | 56(24.6) | 1(0.4) | 228(21.4) |
| 중 농 | 64(12.5) | 124(24.2) | 8(1.6) | 11(2.1) | 78(15.2) | 36(7.0) | 47(9.2) | 8(1.6) | 132(25.7) | 5(1.0) | 513(48.2) |
| 대 농 | 27(9.1) | 85(28.6) | 1(0.3) | 8(2.7) | 46(15.5) | 24(8.1) | 38(12.8) | 6(2.0) | 58(19.5) | 4(1.4) | 297(27.9) |

을 것이다.

그러나 「農協」, 「이장·지도자」, 「읍·면사무소」는 극히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적어도 경제작물의 作付體系 결정에 관한 한 農村에서 情報源(source of information)으로서의 이들의 機能은 그렇게 크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情報源으로서 이장·지도자들이 생각보다는 적게 나온 것은 현지통신원들 가운데 현지에서 그 직책을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위와 같은 情報源을 階層別로 볼 때 가장 比重이 높은 「農村指導所」의 경우 연령층별로는 老年層일수록, 학력별로는 低學歷層일수록, 경작규모별로는 零細農과 大農에서 농촌지도소의 情報에 의존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반면 「별다른 정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도 23.7%나 차지하고 있다. 이는 農民들이 作付體系에 관한 意思決定을 내림에 있어서 恣意的인 면을 보여주는, 즉 종래의 전통적 방법을 그대로 따르거나 경영결정의 非合理性을 드러낸 경우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항목에 관한 응답을 속성별로 보면 연령층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경작규모별로는 영세농층일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2. 作付體系의 決定方法

情報의 認知가 바로 결정 또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여러 연구가 있고 또 우리의 일상 경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이러한 복잡한 단계적 인식은 피하려고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情報源에서 얻은 認知 내용을 토대로 하여 어떻게 作付體系를 결정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경제작물의 작부체계를 결정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자세히 설

명해 주십시오”라는 設問을 보냈으며 이에 대한 응답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 결과는 <表 6>과 같았다.

무응답 408명을 제외한 801명의 응답내용은 18개로 大別되었으며 이들의 構成比를 순위대로 보면 「價格動向을 보고」가 26.2%로 가장 많고, 다음이 「收益性 많은 작물선택」으로 16.6%, 「他人이 적게 하는 작물선택」12.1%, 「農村指導所를 통해」 9.9%, 「自家消費用이므로 관심없다」 7.4%, 「營農經驗을 토대로」4.5%, 「이웃과 상의하여」4.2%, 「消費可能性을 분석하여 販賣性 높은 것」4.0%, 「土地에 알맞는 작물 선택」3.0%, 「先導農家 및 篤農家를 통해」2.6%, 「勞動力이 적게 드는 작물 선택」2.1%, 「前作과 後作이 잘 연결되도록」2.0%, 「農協 및 商人과 契約栽培」 1.9%, 「連作을 피하여 輪作한다」1.5%, 「生産量이 많은 작물 선택」1.2%, 「輸入을 안하고 政府收買를 하는 작물 선택」, 「保管이 잘 되는 작물 선택」, 「매월 收入이 고르게」 각 0.2%이다.

무응답 408명은 평소 經濟作物의 栽培에 合理的인 意思決定을 내리지 않고 되는대로 심는 경우와 勞動力 不足이나 資金不足 등의 여러 사정으로 경제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경우, 경제작물로 현금수입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농가의 경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같은 결과로 볼 때 현재 農民들의 作付體系決定에 가장 중요한 影響을 미치는 要因은 價格 및 收益性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제작물 생산 자체가 現金收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를 極大化하는 방향으로서 가격 및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예를 들어 마늘, 양파, 고추와 같은 주요 經濟作物을 재배하는 응답자들의 栽培決定要因을 보면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表 7>

表 6 作付體系의 決定方法

단위 : 명 (%)

| 구분 | 가격동향 을 보고 | 영농경험 을 토대로 | 농촌지도 소를 통해 | 소비가능 성 여부를 판별해 성 높은 것 | 수익성 많은 작물 선택 | 선도농가 및 독농 가를 통해 | 타인이 적 게 하는 작 물 선택 | 이웃과 상의하여 | 농협 및 상인과 계약재배 | 자가소비 용이므로 관심없다 | 토지에 알맞는 작물선택 | 연작을 피하여 윤작한다 | 전작과 후 작이 잔여 결되도록 | 노동력이 적게 드는 작물선택 | 생산량이 많은 작물선택 | 수입고정 수매율 작물선택 | 수입안 부하 작물선택 | 보관이 잘되는 작물선택 | 매월 수입이 고르게 | 계 |
|-----------|---------------|---------------|---------------|--------------------------------|--------------------|-----------------------|-------------------------|-------------|---------------------|----------------------|--------------------|--------------------|------------------------|-----------------------|--------------------|---------------------|-------------------|--------------------|------------------|---|
| 평균 | 210 (26.2) | 36(4.5) | 79(9.9) | 32(4.0) | 133 (16.6) | 21(2.6) | 97(12.1) | 34(4.2) | 15(1.9) | 59(7.4) | 24(3.0) | 12(1.5) | 16(2.0) | 17(2.1) | 10(1.2) | 2(0.2) | 2(0.2) | 2(0.2) | 801 (100.0) | |
| 20대 | 4(22.2) | 1(5.6) | 1(5.6) | 0(0.0) | 4(22.2) | 1(5.6) | 1(5.6) | 0(0.0) | 0(0.0) | 3(16.7) | 2(11.1) | 0(0.0) | 0(0.0) | 1(5.6) | 0(0.0) | 0(0.0) | 0(0.0) | 0(0.0) | 18(2.2) | |
| 30대 | 37(30.3) | 5(4.1) | 8(6.6) | 5(4.1) | 22(18.0) | 5(4.7) | 17(13.9) | 3(2.5) | 1(0.8) | 8(6.6) | 5(4.1) | 1(0.8) | 3(2.5) | 2(1.6) | 0(0.0) | 0(0.0) | 0(0.0) | 0(0.0) | 122(15.2) | |
| 40대 | 100 (26.4) | 17(4.5) | 34(9.0) | 12(3.2) | 63(16.6) | 5(1.3) | 49(12.9) | 18(4.7) | 10(2.6) | 24(6.3) | 12(3.2) | 8(2.1) | 7(1.8) | 10(2.6) | 6(1.6) | 0(0.0) | 2(0.5) | 2(0.5) | 379 (47.3) | |
| 5·60 대 | 69(24.5) | 13(4.6) | 36(12.8) | 15(5.3) | 44(15.6) | 10(3.5) | 30(10.6) | 13(4.6) | 4(1.4) | 24(8.5) | 5(1.8) | 3(1.1) | 6(2.1) | 4(1.4) | 4(1.4) | 2(0.7) | 0(0.0) | 0(0.0) | 282 (35.2) | |
| 국종 | 34(25.2) | 6(4.4) | 15(11.1) | 5(3.7) | 23(17.0) | 5(3.7) | 12(8.9) | 8(5.9) | 2(1.5) | 11(8.1) | 4(3.0) | 1(0.7) | 1(0.7) | 4(3.0) | 3(2.2) | 1(0.7) | 0(0.0) | 0(0.0) | 135 (16.9) | |
| 중종 | 78(25.8) | 15(5.0) | 32(10.6) | 13(4.3) | 56(18.5) | 5(1.7) | 32(10.6) | 11(3.6) | 8(2.6) | 18(6.0) | 11(3.6) | 5(1.7) | 8(2.6) | 6(2.0) | 2(0.7) | 1(0.3) | 0(0.0) | 1(0.3) | 302 (37.7) | |
| 고종 | 88(27.8) | 15(4.7) | 28(8.8) | 11(3.5) | 53(16.7) | 8(2.5) | 43(13.6) | 13(4.1) | 4(1.3) | 25(7.9) | 9(2.8) | 3(0.9) | 5(1.6) | 5(1.6) | 5(1.6) | 0(0.0) | 2(0.6) | 0(0.0) | 317 (39.6) | |
| 매종 | 10(21.3) | 0(0.0) | 4(8.5) | 3(6.4) | 1(2.1) | 3(6.4) | 10(21.3) | 2(4.3) | 1(2.1) | 5(10.6) | 0(0.0) | 3(6.4) | 2(4.3) | 2(4.3) | 0(0.0) | 0(0.0) | 0(0.0) | 1(2.1) | 47(5.9) | |
| 영새 농 | 3(20.0) | 2(13.3) | 4(26.7) | 0(0.0) | 2(13.3) | 0(0.0) | 0(0.0) | 1(6.7) | 0(0.0) | 2(13.3) | 0(0.0) | 0(0.0) | 1(6.7) | 0(0.0) | 0(0.0) | 0(0.0) | 0(0.0) | 0(0.0) | 15(1.9) | |
| 소년 농 | 48(28.9) | 7(4.2) | 18(10.8) | 7(4.2) | 25(15.1) | 5(3.0) | 17(10.2) | 7(4.2) | 2(1.2) | 8(4.8) | 9(5.4) | 3(1.8) | 3(1.8) | 0(0.0) | 4(2.4) | 2(1.2) | 1(0.6) | 0(0.0) | 166 (20.7) | |
| 중년 농 | 109 (27.7) | 20(5.1) | 30(7.6) | 14(3.6) | 66(16.8) | 10(2.5) | 44(11.2) | 19(4.8) | 9(2.3) | 36(9.1) | 12(3.0) | 6(1.5) | 3(0.8) | 11(2.8) | 4(1.0) | 0(0.0) | 0(0.0) | 1(0.3) | 394 (49.2) | |
| 매년 농 | 50(22.1) | 7(3.1) | 27(11.9) | 11(4.9) | 40(17.7) | 6(2.7) | 36(15.9) | 7(3.1) | 4(1.8) | 13(5.8) | 3(1.3) | 3(1.3) | 9(4.0) | 6(2.7) | 2(0.9) | 0(0.0) | 1(0.4) | 1(0.4) | 226 (28.2) | |

表 7 마늘재배의 決定要因

| 종 류 | 빈도수 (개) | 구성비 (%) |
|----------------------------------|------------|------------|
| 타작물보다 수익성이 높아서 | 215 | 41.0 |
| 가격동향을 보고 | 96 | 18.3 |
| 자가소비 및 친척용으로 | 61 | 11.6 |
| 단위당 생산량이 높아서 | 41 | 7.8 |
| 노동력이 적게 들고 재배가 용이해서 | 38 | 7.3 |
| 현금화작물로 목돈마련에 좋아서 | 31 | 5.9 |
| 판매가 용이해서 | 23 | 4.4 |
| 토전에 알맞아서 | 14 | 2.7 |
| 수입을 억제하고 국내소비에 대한 충 분한 공급을 위해 | 5 | 1.0 |
| 계 | 524 | 100.0 |

表 8 양파재배의 決定要因

| 종 류 | 빈도수 (개) | 구성비 (%) |
|----------------------|------------|------------|
| 수익성이 좋아서 | 56 | 50.9 |
| 가격동향을 보고 | 13 | 11.8 |
| 다른 작물재배가 마땅치 않아 | 13 | 11.8 |
| 노동력이 적게 들고 재배가 용이 | 9 | 8.2 |
| 판매가 용이 | 8 | 7.3 |
| 타지역의 재배면적에 대한 정보를 듣고 | 7 | 6.4 |
| 목돈마련을 위해 | 3 | 2.7 |
| 단경기출하를 목적으로 | 1 | 0.9 |
| 계 | 110 | 100.0 |

表 9 고추재배의 決定要因

| 종 류 | 빈도수 (개) | 구성비 (%) |
|----------------------|------------|------------|
| 수익성이 좋아서 | 286 | 41.8 |
| 자가소비 및 친척용으로 | 210 | 30.7 |
| 농가자금 회전에 좋아서 | 79 | 11.5 |
| 가격동향을 보고 | 46 | 6.7 |
| 지역의 토질에 맞고 기술축적이 되어 | 18 | 2.6 |
| 농한기에 재배가 용이 | 15 | 2.2 |
| 복합영농단지조성으로 | 8 | 1.2 |
| 대체작물이 없어서 | 7 | 1.0 |
| 타지역의 재배면적에 대한 정보를 듣고 | 7 | 1.0 |
| 윤작을 한다 | 4 | 0.6 |
| 근교농업으로 적당해서 | 4 | 0.6 |
| 군남 | 1 | 0.1 |
| 계 | 685 | 100.0 |

<表 8>, <表 9>에서 볼 수 있다.

한편 <表 6>의 作付體系 決定方法에 대한 응답내용별 階層分析을 해보면 비중이 가장 큰「가격동향을 보고」의 경우 뚜렷한 특징이 없었으며,

다음「수익성 많은 작물 선택」은 연령층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학력별로는 低學歷層일수록, 경작규모별로는 大農層일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그리고「他人이 적게 하는 작물 선택」은 高學歷層일수록, 大農層일수록 그 비중이 높았으며「농촌지도소를 통해」는 老年層일수록, 低學歷層일수록, 零細農層일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IV. 生産・價格波動의 原因

여기서 경제작물의 「生産・價格波動의 原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否定的 現象을 일으키는 實體的인 原因 또는 要素 그 자체라기보다는 여러 차례 겪는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週期的 現象처럼 맞게 되는 波動의 여러 가능한 理由에 대한 生産・利害主體인 농민들의 認識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관련 政策차원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우리는 해마다 經濟作物의 週剩生産과 過少生産에 의해 價格의 波動을 겪고 때로는 그 때문에 크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구체적으로)”로서 이를 간략하게 요약한 응답결과는 <表10>과 같다.

무응답 360명을 제외한 849명의 응답내용은 13개로 大別되었으며 이들을 그 比重이 큰 순위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농민들의 投機性栽培」가 44.2%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가령 농민들이 금년에 價格이 좋다 하면 이듬해에 너도 나도 재배 하여서 價格暴落 現象을 초래하고, 價格이 폭락하면 이듬해에 生産을 기피하여 品貴 내지 가격안등 現象을 유발시키고 있는 것으로 그 理由를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내 준다. 여기에는 매스컴을 통한

表 10 生産・價格波動的 原因

단위 : 명 (%)

| 구분 | 농민들의 투기성 재배 | 중간상인 들의 농 간 | 당국의 계획 수요 의 적 조 기 수 급 의 한 조 기 | 일기 관 계 의 한 년 에 홍 · 풍 으로 | 재 배 면 적 의 증 가 | 농 민 의 경 영 수 단 의 과 적 인 재 배 | 적 정 한 작 부 하 중 보 부 족 | 농 업 기 술 진 보 의 한 생 산 증 대 | 농 산 물 생 산 통 제 가 불 가 능 해 서 | 종 묘 사 의 종 자 공 급 과 잉 | 특 별 한 소 독 작 목 개 발 이 없 어 서 | 저 장 보 관 의 어 려 움 과 홍 수 출 라 | 농 민 들 의 소 비 성 을 감 안 하 지 않 은 작 물 재 배 | 계 |
|----------------------------|-------------------|----------------------|---|---|---------------------------------|---|--|--|---|--|---|---|--|------------|
| 평균 | 375(44.2) | 51(6.0) | 190(22.4) | 34(4.0) | 28(3.3) | 49(5.8) | 6(0.7) | 4(0.5) | 9(1.1) | 1(0.1) | 1(0.1) | 23(2.7) | 78(9.2) | 849(100.0) |
| 20대 | 12(63.2) | 0(0.0) | 2(10.5) | 0(0.0) | 0(0.0) | 2(10.5)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3(15.8) | 19(2.2) |
| 30대 | 69(52.7) | 9(6.9) | 21(16.0) | 3(2.3) | 4(3.1) | 9(6.9) | 4(3.1) | 0(0.0) | 1(0.8) | 0(0.0) | 0(0.0) | 2(1.5) | 9(6.9) | 131(15.4) |
| 40대 | 179(42.6) | 26(6.2) | 98(23.3) | 16(3.8) | 20(4.8) | 23(5.5) | 2(0.5) | 2(0.5) | 3(0.7) | 0(0.0) | 1(0.2) | 15(3.6) | 35(8.3) | 420(49.5) |
| 5·60대 | 115(41.2) | 16(5.7) | 69(24.7) | 15(5.4) | 4(1.4) | 15(5.4) | 0(0.0) | 2(0.7) | 5(1.8) | 1(0.4) | 0(0.0) | 6(2.2) | 31(11.1) | 279(32.8) |
| 국 중 고 대 총 계 | 73(47.4) | 9(5.8) | 32(20.8) | 9(5.8) | 8(5.2) | 8(5.2) | 0(0.0) | 0(0.0) | 3(1.9) | 0(0.0) | 0(0.0) | 2(1.3) | 10(6.5) | 154(18.1) |
| 중 고 대 총 계 | 157(45.4) | 22(6.4) | 63(18.2) | 10(2.9) | 13(3.8) | 22(6.4) | 4(1.2) | 2(0.6) | 5(1.4) | 1(0.3) | 0(0.0) | 11(3.2) | 36(10.4) | 346(40.8) |
| 영 소 중 대 총 계 | 133(44.2) | 17(5.6) | 74(24.6) | 15(5.0) | 7(2.3) | 15(5.0) | 1(0.3) | 2(0.7) | 1(0.3) | 0(0.0) | 1(0.3) | 9(3.0) | 26(8.6) | 301(35.5) |
| 영 소 중 대 총 계 | 12(25.0) | 3(6.3) | 21(43.8) | 0(0.0) | 0(0.0) | 4(8.3) | 1(2.1) | 0(0.0) | 0(0.0) | 0(0.0) | 0(0.0) | 1(2.1) | 6(12.5) | 48(5.7) |
| 영 소 중 대 총 계 | 8(3.8) | 1(3.8) | 4(15.4) | 2(7.7) | 2(7.7) | 4(15.4) | 0(0.0) | 0(0.0) | 0(0.0) | 0(0.0) | 0(0.0) | 3(11.5) | 2(7.7) | 26(3.1) |
| 영 소 중 대 총 계 | 80(47.3) | 12(7.1) | 29(17.2) | 8(4.7) | 7(4.1) | 9(5.3) | 1(0.6) | 2(1.2) | 2(1.2) | 0(0.0) | 1(0.6) | 2(1.2) | 16(9.5) | 169(19.9) |
| 영 소 중 대 총 계 | 186(44.8) | 23(5.5) | 92(22.2) | 18(4.3) | 10(2.4) | 23(5.5) | 1(0.2) | 1(0.2) | 4(1.0) | 1(0.2) | 0(0.0) | 12(2.9) | 44(10.6) | 415(48.9) |
| 영 소 중 대 총 계 | 101(42.3) | 15(6.3) | 65(27.2) | 6(2.5) | 9(3.8) | 13(5.4) | 4(1.7) | 1(0.4) | 3(1.3) | 0(0.0) | 0(0.0) | 6(2.5) | 16(6.7) | 239(28.2) |

經濟作物의 過多宣傳의 문제, 國土가 좁아 어디서나 경제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점, 農村에 별다른 副業이나 마땅한 代替作物이 없다는 점 등으로 投機性栽培가 더욱 촉진되었다고 지적한 농민들도 상당수가 있었다.

한편 이를 階層別로 보면 연령층별로는 젊은 층일수록, 학력층별로는 低學歷層일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다음은 「당국의 需給計劃에 의한 植付面積調節 및 收買機能의 부족」으로 22.4%를 차지하였다. 이는 當局에서 정확한 統計에 의한 需給計劃으로 植付面積을 조절하고 적당한 價格支特(豫示價格別 등)와 충분한 收買貯藏을 할 수 있는 현실적 與件을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하며, 때로는 당국의 일률적인 장려 등으로 인한 過剩生産으로 收支가 잘 맞지 않고 또 輸出과의 連繫가 잘 안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生産量調整과 出荷調節 등(系統出荷가 제대로 안되거나, 加工施設의 미비 등)을 當局에서 정책적으로 지도·관리하는 制度的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指導所에서 권장하는 品種이 전국에서 거의 같은 경우도 있는데 이처럼 生産指導에만 편중하는 결과도 波動의 원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를 階層別로 보면 연령층별로는 老年層일수록, 학력별로는 高學歷層일수록, 경작규모별로는 大農層일수록 그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消費성을 감안하지 않은 농민들의 作付體系」로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耕作農民이 消費량과 서로의 播種面積에 대한 情報에 어둡고 더구나 消費량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生産農家가 늘어나는 등 농민들이 소비성을 감안하지 않은 非合理的 作付體系 결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유로 보고 있는 것이

다.

다음은 「中間商人들의 농간」으로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중간상인들이 농간을 부려 買占賣惜하거나 價格造作까지 하는 일이 적지 않고 여러 단계의 복잡한 流通構造를 갖고 있는 農產物 流通 구조의 特性 등을 그 이유로 한 것이다.

다음은 「농민의 경영미숙과 無計劃的인 재배」로서 5.8%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先導農家가 하는 것은 아무것이나 좋은 줄 알고 농민들이 따라서 하는 경향이 있고 남이 안하는 것을 하도록 자신이 研究하는 힘이 모자란다는 것을 말한다.

그밖에 「日氣관계에 의한 凶·豊年으로」 4.0%, 「재배면적과 생산농가의 증가」 3.3%, 「저장보관의 어려움과 洪水出荷」 2.7%, 「農產物生産은 統制가 불가능해서」 1.1%, 「適正한 작부체계 등에 대한 弘報不足」 0.7%, 「農業技術進歩에 의한 生産量增大」 0.5%, 「종묘사의 種子供給過剩」 0.1%, 「특별한 所得作目開發이 없어서」 0.1%로 나타났다.

경제작물의 生産·價格波動의 原因에 대한 농민들의 認識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나타내주고 있는바, 따라서 이에 대한 政策的 接近도 그렇게 간단할 수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V. 生産·價格波動의 對策; 生産調整의 必要성과 方法

1. 生産調整의 必要性

이에 대한 設問내용은 “그렇다면 地域的으로나 作物別로 生産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表 11 生産調整의 必要性(道別)

| 구분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
| 총 응답자수(명) | 121 | 56 | 84 | 149 | 115 | 192 | 199 | 166 | 29 | 1,111 | |
| 필요하다 | 응답자수(명) | 93 | 49 | 78 | 126 | 95 | 162 | 173 | 140 | 28 | 944 |
| | 응답비율(%) | 76.9 | 87.5 | 92.9 | 84.6 | 82.6 | 84.4 | 86.9 | 84.3 | 96.6 | 85.0 |
|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 응답자수(명) | 24 | 5 | 5 | 15 | 15 | 23 | 15 | 20 | 0 | 122 |
| | 응답비율(%) | 19.8 | 8.9 | 6.0 | 10.1 | 13.0 | 12.0 | 7.5 | 12.0 | 0.0 | 11.0 |
| 모르겠다 | 응답자수(명) | 4 | 2 | 1 | 8 | 5 | 7 | 11 | 6 | 1 | 45 |
| | 응답비율(%) | 3.3 | 3.6 | 1.1 | 5.3 | 4.4 | 3.6 | 5.6 | 3.7 | 3.4 | 4.0 |

表 12 生産調整의 必要性(階層別)

단위: 명(%)

| 구분 | 필요하다 |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 | 모르겠다 | 계 |
|-------|-----------|---------------|---------|--------------|
| 평균 | 944(85.0) | 122(11.0) | 45(4.0) | 1,111(100.0) |
| 20대 | 23(82.1) | 2(7.1) | 3(10.8) | 28(2.5) |
| 30대 | 146(87.4) | 17(10.2) | 4(2.4) | 167(15.0) |
| 40대 | 456(84.1) | 60(11.1) | 26(4.8) | 542(48.8) |
| 5.60대 | 319(85.3) | 43(11.5) | 12(3.2) | 374(33.7) |
| 국출 | 170(83.7) | 26(12.8) | 7(3.5) | 203(18.3) |
| 중출 | 370(84.5) | 55(12.5) | 13(3.0) | 438(39.4) |
| 고출 | 352(85.9) | 34(8.3) | 24(5.8) | 410(36.9) |
| 대출 | 52(86.7) | 7(11.7) | 1(1.6) | 60(5.4) |
| 영세농 | 24(182.8) | 4(13.8) | 1(3.4) | 29(2.6) |
| 소농 | 192(81.7) | 31(13.2) | 12(5.1) | 235(21.2) |
| 중농 | 457(85.4) | 58(10.8) | 20(3.8) | 535(48.2) |
| 대농 | 271(86.9) | 29(9.3) | 12(3.8) | 312(28.0) |

가"로서 무응답 98명을 제외한 총 1,111명에 대한 응답결과는 <表 11>, <表 12>와 같았다.

총 1,111명의 응답 중 生産調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944명(85.0%)으로 거의 대다수 농민들은 생산조정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셈이다. 반면,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가 122명(11.0%), 「모르겠다」는 45명(4.0%)에 불과했다.

<表 11>에서 이들 응답 내용을 道別로 총응답자에 대한 응답비율을 살펴보면 生産調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 濟州가 96.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忠北 92.9%, 江原 87.5%, 慶北 86.9%, 忠南 84.6%, 全南 84.4%, 慶南 84.3

%, 全北 82.6%, 京畿 76.9%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주가 감귤, 유채, 맥주맥 등을 특히 많이 재배하고, 충북은 고추, 강원은 고냉지채소, 경북이 고추, 충남이 마늘 등 경제작물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경기의 경우 비닐하우스로 경제작물의 재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生産調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比率이 他道에 비해 적었던 것은 大都市 서울에 근접해 있어 이들이 생산한 經濟作物의 消費에 상대적으로 보다 문제가 적었던 데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生産調整의 필요성에 있어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경기가 19.8%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전북 13.0%, 경남 12.0% 전남 12.0%, 충남 10.1%, 강원 8.9%, 경북 7.5%, 충북 6.0%, 제주 0.0%의 順으로 나타나고 있어 生産調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와 逆의 相關關係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生産調整의 필요성에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경북이 5.6%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이 1.1%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表 13>에서 生産調整의 必要性에 대한 응답 내용을 階層別로 살펴 보면 우선 生産調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에 있어 연령층별로는 30

表 13 生産調整方法(누가)

단위 : 명 (%)

| 구분 | 농협 | 지역행정기관 | 중앙행정기관 | 생산농민 | 농촌진흥청 | 계 |
|-------|-----------|----------|-----------|-----------|---------|------------|
| 평균 | 160(18.3) | 85(9.7) | 468(53.4) | 103(11.8) | 60(6.8) | 876(100.0) |
| 20대 | 4(19.0) | 0(0.0) | 13(61.9) | 2(9.5) | 2(9.5) | 21(2.4) |
| 30대 | 30(21.9) | 16(11.7) | 69(50.4) | 12(8.8) | 10(7.3) | 137(15.6) |
| 40대 | 74(17.5) | 37(8.7) | 221(52.2) | 62(14.7) | 29(6.9) | 423(48.3) |
| 5·60대 | 52(17.6) | 32(10.8) | 165(55.9) | 27(9.2) | 19(6.5) | 295(33.7) |
| 국출 | 22(14.3) | 17(11.0) | 89(57.8) | 15(9.7) | 11(7.2) | 154(17.6) |
| 중출 | 63(18.3) | 34(9.9) | 183(53.2) | 43(12.5) | 21(6.1) | 344(39.3) |
| 고출 | 67(20.2) | 27(8.2) | 171(51.7) | 40(12.1) | 26(7.9) | 331(37.8) |
| 대출 | 8(17.0) | 7(14.9) | 25(53.2) | 5(10.6) | 2(4.3) | 47(5.4) |
| 영세농 | 3(14.3) | 0(0.0) | 10(47.6) | 5(23.8) | 3(14.3) | 21(2.4) |
| 소농 | 30(16.6) | 16(8.8) | 96(53.0) | 25(13.8) | 14(7.7) | 181(20.7) |
| 중농 | 82(19.6) | 41(9.8) | 228(54.5) | 43(10.3) | 24(5.7) | 418(47.7) |
| 대농 | 45(17.6) | 28(10.9) | 134(52.3) | 30(11.7) | 19(7.4) | 256(29.2) |

대가 가장 많았고, 학력별로는 高學歷層일수록, 경작규모별로는 大農層일수록 그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생산조정 必要性에 있어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 연령층별로 老年層일수록, 학력별로 低學歷層일수록, 경작규모별로 零細農層일수록 그 比重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생산조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와 逆의 相關關係를 보이는 것이다.

「모르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연령층별로 20대에서, 학력별로는 高卒層에서 경작규모별로는 小農層에서 비중이 가장 높았다.

2. 生産調整方法

이에 대한 設問內容은 “생산조정이 필요하다면 그 대책으로서 ① 누가, ②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구체적으로 자세히 적어 주십시오)”로서 그 응답결과는 <表 13>, <表 14>와 같았다.

누가 生産調整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응답결과가 <表 13>에 나타나 있으며 무응답 333명을 제외한 876명의 응답내용은 5개로 大別되었다. 이들의 構成比를 순위대로 보면 「中央行政機關」

이 53.4%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政府나 農水産部가 生産調整機能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들에 대한 農民의 期待가 매우 큰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農協」으로서 18.3%, 「生産農民」 11.8%, 「地域行政機關」 9.7%, 「農村振興廳」 6.8%로 나타났다.

어떻게 生産調整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간단하게 요약한 응답결과는 <表 14>와 같으며 무응답 358명을 제외한 851명의 응답내용은 13개로 大別되었다. 이들의 構成比를 順位대로 나열하여 해설하면 다음과 같다.

「中央行政機關에서 精確한 統計로 植付面積의 地域配分·調節(地域土質과 作物의 連繫등)」이 37.1%로 그 비중이 가장 컸다. 이의 구체적인 내용은 소비와 생산에 관한 精確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需給計劃으로 지역토질과 작물을 연계시켜 지역배분·조절을 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品種別 團地化·專門化로 生産費를 節減시키는 동시에 適正生産을 기하도록 하며, 가능한 政府收買와 契約栽培로 販路를 유도하고, 현지에 加工處理工場을 세워 저장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과잉생산시에 輸出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表 14 生産調整方法(어떻게)

단위 : 명 (%)

| 구분 | 농업에의한계통한적정생산 | 한외의배출하를제한하여유용하게개선 | 농업의공간적유통개선 | 확한통계자료의정확성(적정가격의고시) | 선제한농산물가격조절로농산물가격의안정 | 재배희망농작물조절 | 중앙행정기관에서작성하는지역별농작물연계 | 관공통적의조절(지역별과수배분방식) | 인생산시비고산시수배분방식 | 지역의기후토질에맞는작물재배토류 | 산지의특성올고려한재배제약제배제확립 | 정확한관계정보의제공 | 총보 | 농민들이정보를취급할수있는경 | 모물취급을실로정해야 | 종묘입자통한종자공급조절 | 계 |
|-------|--------------|-------------------|------------|---------------------|---------------------|-----------|----------------------|--------------------|---------------|------------------|--------------------|------------|--------|----------------|------------|--------------|---|
| 평균 | 138(16.2) | 10(1.2) | 26(3.1) | 15(1.8) | 11(1.3) | 316(37.1) | 30(3.5) | 44(5.2) | 11(1.3) | 101(11.9) | 50(5.9) | 91(10.7) | 8(0.9) | 851(100.0) | | | |
| 20대 | 3(15.0) | 0(0.0) | 0(0.0) | 0(0.0) | 1(5.0) | 7(35.0) | 0(0.0) | 1(5.0) | 1(5.0) | 4(20.0) | 2(10.0) | 1(15.0) | 0(0.0) | 20(2.4) | | | |
| 30대 | 26(19.3) | 3(2.2) | 6(4.4) | 2(1.5) | 0(0.0) | 53(39.3) | 2(1.5) | 5(3.7) | 2(1.5) | 15(11.1) | 8(5.9) | 12(8.9) | 1(0.7) | 135(15.9) | | | |
| 40대 | 68(16.6) | 3(0.7) | 15(3.7) | 7(1.7) | 7(1.7) | 146(35.6) | 14(3.4) | 25(6.1) | 4(1.0) | 39(9.5) | 20(4.9) | 57(13.9) | 5(1.2) | 410(48.2) | | | |
| 5·60대 | 41(14.3) | 4(1.4) | 5(1.7) | 6(2.1) | 3(1.0) | 110(38.5) | 14(4.9) | 13(4.5) | 4(1.4) | 43(15.0) | 20(7.0) | 21(7.3) | 2(0.7) | 286(33.6) | | | |
| 국준 | 18(12.2) | 3(2.0) | 6(4.1) | 6(4.1) | 4(2.7) | 57(38.8) | 7(4.8) | 6(4.1) | 1(0.7) | 18(12.2) | 8(5.4) | 13(8.8) | 0(0.0) | 147(17.3) | | | |
| 중준 | 55(16.4) | 3(0.9) | 10(3.0) | 4(1.2) | 4(1.2) | 120(35.8) | 12(3.6) | 20(6.0) | 4(1.2) | 37(11.0) | 20(6.0) | 41(12.2) | 5(1.5) | 335(39.4) | | | |
| 고준 | 58(18.0) | 4(1.2) | 9(2.8) | 5(1.5) | 2(0.6) | 24(38.4) | 8(2.5) | 14(4.3) | 5(1.5) | 40(12.4) | 20(6.2) | 33(10.2) | 1(0.3) | 323(38.0) | | | |
| 대출 | 7(15.2) | 0(0.0) | 1(2.2) | 0(0.0) | 1(2.2) | 115(32.6) | 3(6.5) | 4(8.7) | 1(2.2) | 6(13.0) | 2(4.3) | 4(8.7) | 2(4.3) | 46(5.4) | | | |
| 영세농 | 3(15.0) | 0(0.0) | 0(0.0) | 0(0.0) | 0(0.0) | 6(30.0) | 0(0.0) | 2(10.0) | 0(0.0) | 4(20.0) | 1(5.0) | 4(20.0) | 0(0.0) | 20(2.4) | | | |
| 소농 | 27(15.3) | 2(1.1) | 3(1.7) | 7(4.0) | 3(1.7) | 59(33.3) | 5(2.8) | 11(6.2) | 1(0.6) | 20(11.3) | 12(6.8) | 24(13.6) | 3(1.7) | 177(20.8) | | | |
| 중농 | 69(17.1) | 6(1.5) | 9(2.2) | 5(1.2) | 5(1.2) | 155(38.4) | 16(4.0) | 21(5.2) | 5(1.2) | 50(12.4) | 20(5.0) | 39(9.7) | 4(1.0) | 404(47.5) | | | |
| 대농 | 39(15.6) | 2(0.8) | 14(5.6) | 3(1.2) | 3(1.2) | 96(38.4) | 9(3.6) | 10(4.0) | 5(2.0) | 27(10.8) | 17(6.8) | 24(9.6) | 1(0.4) | 250(29.4) | | | |

방안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이 경우 충분한 개인의 자유가 제약을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것이 대부분의 농민들의 意思였다. 심지어는 許可制 또는 申告制로 生産調整을 해야 한다는 농민들도 있었다.

이를 階層別로 볼 때 연령층별로는 30代에서, 학력별로는 國卒層에서, 경작규모별로는 大農層일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다음은 「農協에 의한 契約栽培와 系統出荷를 통한 適正生産」으로 16.2%의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농협에서 적절한 計劃을 수립하여 生産량을 할당하고 地域別, 作物別, 時期別 系統出荷토록 하는 契約栽培를 통해 植付面積을 조절하도록 하여 適正生産을 기하자는 것이다.

이를 階層別로 볼 때 연령층별로는 30代에서, 학력별로는 高卒層에서, 경작규모별로는 中農層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正確한 關係情報의 제공」이 11.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關係機關에서 國內에서 소비할 수 있는 量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인근 지역이나 他地域의 안하는 농사에 情報나 種子알선으로 과잉재배를 미리 막도록 하는 한편 栽培面積, 生産量 등에 관한 正確한 정보를 마스크를 통해 알려주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이를 階層別로 보면 연령층별로는 20代에서, 학력별로는 大卒層에서, 경작규모별로는 零細農層에서 그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농민들이 모든 情報를 취합해서 투기성을 버리고 消費實績을 토대로 適正經營을 기해야」로서 1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농민들이 대상작물의 소비실적 등에 관한 情報를 취합해서 이를 토대로 土質에 맞게 고루 재배하고 出荷의 適切한 조절 등으로 適正經營을 기하는 한편 농민들이 地域別, 作物別 農民

代表協議體를 구성하여 產地組織을 강화하고 情報交換을 하여 政府協助하에 生産을 조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농민들은 政府에서 生産調整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의식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階層別로 보면 연령층별로는 40代에서, 학력별로는 中卒層에서, 경작규모별로는 零細農層일수록 그 비중이 높았다.

그밖에 「弘報」가 5.9%, 「지역의 기후·토질에 알맞는 작물 재배토록」 5.2%, 「과잉생산시 政府에서 備蓄收買하고 과소생산시 收買분 放出」 3.5%, 「정확한 統計에 의한 價格豫示制」 3.1% 「철저한 농산물가조절로 農産物價格의 安定」 1.8%, 「재배희망 농가조사로 면적조절」 1.3%, 「產地의 特性을 고려한 계약재배체계의 확립」 1.3%, 「중간상인들의 농간억제로 유통과정개선」 1.2%, 「종묘업자를 통한 증가공급조절」 0.9%로 나타났다.

VI. 맺는 말

이상에서 經濟作物의 作付體系결정과 生産調整에 관한 農民意識을 개략적으로 정리하였거니와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農民들이 경제작물의 作付體系를 결정할 경우 우선 認知단계의 情報源으로서 農村指導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情報源으로부터 얻은 내용을 토대로 자신의 作付體系를 결정할 때는 주로 價格動向과 收益性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한다.

(2) 따라서 生産·價格波動은, 위와 같은 價格動向에 농민들이 지나치게 민감하게 反應, 收

益性에만 치우치는 非合理的 經營決斷을 내리는 경향, 즉 가격파동은 농민들의 投機性栽培로 일어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3) 그러므로 이와 같은 투기性栽培를 없애기 위해서 生産調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 對策으로는 農水産部 등 정부 中央行政機關이나 農協 등에서 정확한 統計로 地域土質과 作物을 連繫시켜 植付面積을 地域的으로 配分하고 調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볼 때 경제작물의 생산조정에 관해 농민들의 政府에 대한 期待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생산조정은 궁극적으로 個人的 경제적 自由를 制約당하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자신의 경제적 自由가 일부 희생이 되더라도 이와같은 政策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有關當局으로서 이 문제에 관한 새로운 政策次元의 고찰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自由主義原則에 입각한 生産體制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단지 거의 週期的으로 生産・價格파동이 나타나고 그 때문에 많은 농민들이 크게 손실을 보게 되는 經濟作物 등의 경우 현재로서는 농민들이 진정한 經營能力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재배가 所得向上으로 쉽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與件이 성숙될 때까지는 이에 대한 政府 또는 關係기관의 효율적인 介入은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경우에도 介入은 최소한에 그치면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 모든 政策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모든 경우와 마찬가지로 生産・價格의 安定으로 生産농민들에게 실질적인 所得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론 이 과정에서 소비자측 이익도 考慮되어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參 考 文 獻

- 金聖昊, 金云根, 「價格維持와 生産調整」,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48, 1982.
- 李永錫, 「高冷地菜蔬의 栽培現況 및 需給에 관한 研究」, 韓國農村經濟研究院, 研究報告 55, 1983.
- Schneider, Ivo A., Fett John H., "Diffusion of Mass Media Messages among Brazilian Farmers," in ed., E.M. Rogers, *Communication and Development-Critical Perspectives*, Sage Publications, California, 1976.
- Rogers, Everett M. and F. Floyd Shoemaker, *Communication of Innovations—A Cross-cultural Approach*, The Free Press, New York, 1971.